

# 美, 80년 묵은 물 협약 압박... 세인바움 외교력 눈길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가 미국의 '물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80여년 전 맺어져 지난 30년간 유명무실해진 양국 간 강물공급협약을 이행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멕시코는 자국 북부의 댐 방류량을 약 7배 늘렸다. 양국 국경지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국경수구역위원회(CILA-영어 약칭 IBWC)가 15일(현지 시간) 멕시코 코아우일라주(州) 아쿠냐의 아미스타드 댐 방류량을 초당 18m<sup>3</sup>에서 120m<sup>3</sup>로 늘렸다고 밝혔다.

물 공급 불이행을 트럼프가 문제 삼으면서 멕시코 정부는 관세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0월 취임한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우 단계적 조치를 포함해 전반적인 우리의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여기에 미 텍사스 농민들을 위한 즉각적 방류량 증대도 들어간다"고 말한 바 있다.

브라보(미국령 미오그란데)강 유역의 아미스타드(La Amistad) 댐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과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타스 멕시코 대통령이 모두 준공식에 참석했을 만큼 양국 우호의 상징물이며 댐 이름 자체가 '우정'(라 아미스타드)이다. 그러나 이곳이 최근 수년 동안 강물공급 문제 관련해 외교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1944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매년 멕시코 브라보 강물 3분의1가량인 4억3000만 m<sup>3</sup>가량을 미국으로, 미국 콜로라도강에서 약 19억 m<sup>3</sup>가량을 멕시코로 흘리기로 돼 있으나 최근 30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멕시코 측 가뭄과 자동차·전자제품 생산 시설 증가에 의한 산업용수 수요 때문이 컸다. 멕시코 정부가 현재 관세 협상팀과 별개로 '물 갈등 협상팀'을 꾸려 미국 측과 접촉 중이라고 현지 일간 엘파나시에 로에서 보도했다.

한편 댐 방류량 급격 증가에 멕시코 북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댐 관할 자치단체인 아쿠냐의 에밀리오 데 오요스 시장은 성명을 내 "저수량이 사상 최저 수준(12.7%)인데 연방 정부가 23일까지 계속 물을 흘려보낸다고 알려 왔다.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이 가해진 줄은 알지만 이번 조치가 지역 식수공급과 생활활동을 위협에 빠뜨리며 생태계에



9일(현지 시간) 수도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연설하는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관세전쟁 대(對)국인 설령치 마르틴 자리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발표로 축제의 장이 됐다. 작년 10월 취임한 세인바움은 트럼프와 이념 지향이 다르지만 오랜 기독교 카르텔의 타파란 점에서 유사한 위상을 가진다. 관세 외에 트럼프의 '물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EPA-연합뉴스

## 트럼프 압박에 멕시코 댐 방류 확대·협상팀 꾸려 대처 美 관세 위협 속 전략적 대응... 추가 한 달 유예 이끌어 마약 해결 노력·국경 협력 내세워 美와 긍정 관계 유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마놀로 히메네스 코아우일라 주지사 역시 오요스 시장을 지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트럼프1기 때도 멕시코 정부는 다른 지역 댐 방류량을 늘려가며 할당량을 맞추고자 애썼으나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하기도 했다. 강물 문제란 멕시코 정부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국내적·대외적 사안인 것이다. 세인바움 대통령이 이날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 보낼 수량을 결정하고자 연방 정부가 북부 주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2기 출범 이래 여러모로 비교적 선방 중인 멕시코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6일 트럼프는 세인바움과 통화한 후 멕시코-캐나다산 대상 25% 관세 상당 부분을 "추가 한 달 유예" 하기로 하면서 "세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트위터에 썼다. 이어 "우린 관계가 매우 좋다.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증단을 위해 국경 문제에 관해 함께 열

심히 노력한다"고 밝혔다. 세인바움도 엑스 글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존중어린 통화를 했다. 주권을 상호 존중할 틀 안에서 우리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회답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초기만 해도 멕시코가 큰 피해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그 후신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통해 멕시코는 미국을 상대로 저렴한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75%다.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계획은 멕시코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사태였으나 이게 일단 유보된 것이며 세인바움 대통령 전략이 잘 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와 학자 출신이자 정치 경력 일천한 인물이지만 최고의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세인바움은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가 작년 말 대(對)멕시코-캐나다 25% 관세"를 처음 언급했을 때, 지난달 1일 관련 행정명령 서명과 4일 시행일까지 "평온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임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즉각 보복' 등의 발언을 극력 삼갔다. 대신 "플랜 B·C·D가 있다"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대처 가능성으로 국민 불안감을 다독이면서도 협한 말이 언론 머릿기사에 오르지 않도록 했고 트럼프의 진의 파악을 우선시했다.

협상 막판에 등장해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고 마지막 결정을 이끌어내는 세인바움의 수완이 돋보였다. 작년 12월, 올해 2월3일, 3월6일 트럼프와 통화할 때 영어-스페인어를 필요에 맞춰 구사하면서 병력 1만 명 국경 배치와 국경 펜타닐 적발 41.5% 감소 등 마약의 미국 수입 차단 노력 및 성과를 적극 설명했다. 또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관계자 29명을 미국 측에 넘겨 성의를 표시했다. 냉철한 계산적·기술적 접근이 트럼프 다루기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세인바움은 '멕시코의 트럼프'로 불리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현재 지지를 76~85%다. 트럼프 압박에 일반적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마약·갱단 등 고질적인 문제에 과감하게 맞선 모습이 지지를 고공행진의 이유로 꼽힌다. 1월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 부르자는 트럼프에게 "미국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바꾸면 어디냐" 응수하기도 했다. 그런 세인바움에게 2월 트럼프는 "놀라운 여성"이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 저커버그, 반독점 재판 前 합의 시도 불발

### 6428억 원 지불 제안... FTC '불충분' 판단 재판 개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반독점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을 제기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재판 전 합의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달 말 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독점 소송 해결을 위해 4억5000만 달러(6428억 원) 지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FTC가 요구한 벌금 300억 달러(42조8550억 원)에 크게 모자랐고 FTC가 문제 삼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 소액이었다. 퍼거슨 위원장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최소 180억 달러(25조7000억 원)와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동의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금해진 저커버그가 제안 금액을 약 10억 달러로 줄였지만 FTC는 이 역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재판이 시작됐다.

소식통은 저커버그가 퍼거슨 위원장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 회피를 위한 로비를 강하게 벌였다고 전했다.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이 저커버그의 제안에 대해 "망상적"이라며 "경쟁을 피하려 돈을 쓰더니 이전 법 집행에서도 그렇게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저커버그는 전날 이어 이날 열린 메타 반독점 소송 둘째 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유로 카메라 앱 기능의 우수함을 들었다.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인스타그램이 메타(당시 페이스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FTC 측 변론 질문에 인스타그램이 당시 페이스 북보다 "더 나은 카메라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모바일 앱 내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편집·필터 적용·공유 등을 포함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자체 카메라 앱을 '직접 만



반독점 소송을 당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들지 인수할지' 분석 중이었다. 인스타그램이 그 부분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체 앱을 만들려던 여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FTC 측이 과거 페이스북 내부 문서에서 "경쟁하기 보다 인수하는 게 낫다"는 등의 이메일을 공개하고 메타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저커버그의 언급이 메타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사들이거나 배제하는 '인수 아니면 매장' 버리기 전략을 써왔다는 FTC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FTC 측은 이날 인스타그램 인수 전 당시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껴 발송한 내부 이메일을 여러 건 공개했다. 저커버그는 "문맥을 왜곡한 것"이라며 그런 내용의 문건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했던 열의를 강조했다. 또 "해당 이메일들이 인수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며 당시의 판단 내지 감정이 인스타그램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해도 지금 상황과는 관련 없다며 FTC 측 정의의 소셜미디어(SNS) 시장 범위가 너무 좁다고 주장했다. 현재 틱톡·유튜브·애플의 메시지 앱 등 메타의 많은 경쟁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동의보감 東醫寶鑑**  
도라지 桔梗  
도라지 엑기스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60봉지 1상자  
70,000원

사은행사 4상자  
3+1  
210,000원

4개 묶음배송  
무료배송

다로매송시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용 언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 (熱邪 祛熱) 기촉(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충열) 해수(咳嗽-가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축(喘促-기침하고 숨이가쁨) 객혈(咯血-기침에 피를 토함)